하재훈

이흥련

SK 하재훈·이흥련 7월 복귀 감감
박경완 대행 "서두르지는 않겠다"

한 달만의 위닝시리즈로 분위기를 바꿨지만 여전히 어금니가 여럿 빠진 '잇몸 야구' 모드다. SK 와이번스의 완전체는 7월에도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9위로 처진 SK는 투타 중심축의 이탈로 신음하고 있다. 주전 포수 이재원(32), 트레이드로 데려온 안방마님 이흥련(31), 마무리투수 하재훈(30), 내야수 김창평(20), 외야수 한동민(31), 고종욱(31) 등이 부상과 부진으로 1군을 벗어나있는 상태다. 부상자로만 라인업의 일부를 채울 수 있는 수준이다. 이재원과 고종욱은 완쾌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지난주 돌아왔지만 이내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박경완 감독대행은 "100%가 아닐 때 올린 코칭스태프의 미스"라고 자책했다.

우선 안방과 뒷문을 잠그는 게 시급하다. SK는 지난해까지 1군 16경기 출장이 전부인 이현석(28)에게 주전 마스크를 맡긴 상황이다. 5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서 한 달 만에 팀의 첫 세이브를 기록한 박민호가 있지만 고정 마무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흥련과 하재훈의 복귀는 요원하다. 박 대행은 7일 "둘 모두 7월 복귀가 어렵다"고 밝혔다. 가슴 근육이 찢어진 이흥련은 높은 공을 잡기 위해 팔을 뻗는 게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 구원왕을 차지했지만 올해 15경기서 평균자책점 7.62로 부진을 거듭하다가 사라진 하재훈도 자신감을 얻어야 한다. 박 대행은 하재훈에게도 20일 이상의 시간을 줄 생각이다.

기존 선수들을 믿는 수밖에 없다. 박 대행은 "내가 (이)현석이만큼만 경험했을 땐 그 정도 모습을 못 보였다. 송구와 포구는 누구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하다"며 기를 살려줬다. 마무리투수에 대해서도 "(박)민호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일단은 집단마무리로 상황에 따라 투수를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탈자의 복귀를 서두를 생각은 없다. 박 대행은 "부상자가 많지만 빨리 부를 생각은 없다. (이)재원이와 (고)종욱이 역시 90% 이상의 컨디션이 됐을 때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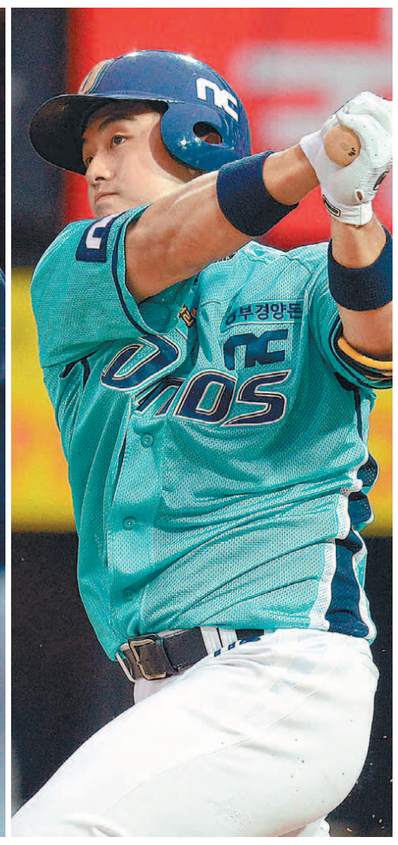
DNA 상속세 낸 야구인 2세들의 진화

이종범 아들?…이정후의 아빠 이종범!

아버지 그림자 지운 이정후·박세혁
강진성·이성곤·정해영 등도 급성장
색안경 이겨내고 실력으로 정면승부

키움 이정후

두산 박세혁


NC 강진성

야구선수 아버지의 DNA라는 자산을 물려받기 위해선 상속세가 어마어마하다. 사실 부모의 일을 자식이 이어받는, 특정 직업을 '가업'으로 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물며 '핏줄'이 성적을 보장할 순 없는 스포츠의 경우 더욱 그렇다.

KBO리그가 39바퀴째 나이테를 그리는 올해, 비로소 '야구인 2세' 농사 대풍이 들었다. 아들 선수들이 아버지가 씌울 수밖에 없던 색안경을 실력으로 벗겼기에 의미 있는 성과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야구인 2세를 꼽으라면 이정후(22·키움 히어로즈)와 박세혁(30·두산 베어스)의 이름만 도드라졌다. 이종범 주니치 드래건스 코치와 박철우 두산 2군 감독의 아들인 이들은 쟁쟁했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성공적으로 지우고 있다.

몇 안 되던 야구인 2세는 올해 부쩍 늘었다. 강진성(NC 다이노스·강광회 심판 아들), 유원상(KT 위즈)-민상(KIA 타이거즈·이상 유승안 전 감독 아들) 형제, 이성곤(삼성 라이온즈·이순철 해설위원 아들), 정해영(KIA·정회열 코치 아들) 등이 1군에서 활약 중이다. 이정후나 박세혁과 달리 이들 모두 올 시즌 주전급으로 분류되지 않았기에 더욱 반전이다.

야구인 2세는 프로 초창기부터 종종 있었다. 김성근 전 감독의 아들인 김정준 해설위원을 비롯해 문희수, 박영태 등 쟁쟁한 1980~1990년대 스타의 자제들이 스파이크를 신었다. 하지만 성공사례는 많지 않다. 야구인 2세 A가 B보다 근소하게 실력이 앞설 때 감독이 A를 기용한다면, B의 학부모가 '특혜'를 따진다. 월등히 뛰어난 실력이 아닌 이상에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풍토는 프로 초창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프로에 입단한 선수들 중에는 이런 등살에 견디지 못하고 전학을 간 사례도 있다.

이호준 NC 타격코치의 아들 동훈 군(18·강릉고)은 그래서 아버지의 정체를 최대한 숨겼다. 이 코치는 "아빠의 존재가 도움은커녕 오히려 작아지게 만드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거듭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최근 박세혁은 "모든 야구인 2세는 잘돼야 한다. 아버지의 그늘이 정말 힘들다. 주위의 색안경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며 "앞으로 성공한 야구인 2세가 늘어난다면 야구계가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존재가 씌운 색안경을 힘겹게 벗어던졌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정후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이제 '이종범 아들 이정후'가 아닌 '이정후 아빠 이종범'으로 만들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아버지의 그림자를 딛고 프로에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바늘귀 통과보다 어려운데, 이제는 아버지를 자신의 후광에 두겠다는 각오였다. 그리고 이정후는 이를 실현하고 있다. KBO리그 최고의 타자였던 '바람의 아들'이 이제는 이정후의 아빠가 된 것이다. 색안경을 지워가는 이들의 활약에 팬들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토론토 류현진 vs 탬파베이 최지만, 개막전부터 만난다

25일 오전 7시40분 빅매치
ML, 2020시즌 스케줄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렵게 시작하는 2020시즌 메이저리그가 24일(한국시간) 뉴욕 양키스-워싱턴 내셔널스의 개막전으로 팀당 60경기의 일정에 돌입한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7일 특별 생방송을 통해 올 시즌 일정을 발표했다. 당초 예정대로 팀당 60경기만 열리는 2020시즌은 개막전부터 최종전까지 스케줄이 이날 모두 확정됐다. 양키스와 워싱턴은 24일 오전 8시8분 내셔널스파크에서 첫 맞대결을 치른다. 3시간 뒤에는 다저스타디움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LA 다저스의 라이벌전이 열린다. 올 시즌에는 30개 구단이 같은 지구 팀들과 40경기를 치르고, 인터리그 형태로 나머지 20경기를 소화한다.

류현진

최지만

코리안 빅리거들은 하루 뒤 출격한다. 먼저 올해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8000만 달러 '잭팟' 계약을 한 류현진(33)이 25일 오전 7시40분 탬파베이 레이스와 원정 개막전에 선발로 등판할 전망이다. 만약 탬파베이 최지만(29)이 출전한다면 코리안 빅리거들의 투타 맞대결이 개막전부터 펼쳐진다.

류현진은 7일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개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2020년 60경기 일정이 발표됐다. 우리는 토론토에 있고, 곧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 가자! 블루제이스!"라는 글을 남겼다. 류현진은 토론토의 홈구장인 로저스센터 옆에 있는 CN타워와 클럽하우스 내 자신의 라커 사진, 그리고 2020시즌 토론토의 정규시즌 일정도 첨부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6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타율	방어율	홈승률	득점	실점	홈런	도루	실책
1	NC	52	36	16	0	0.692	-	2승	0.294	4.71	0.690	339	259	79	32	26
2	키움	54	33	21	0	0.611	4.0	1패	0.272	4.34	0.704	314	254	60	36	40
3	두산	53	31	22	0	0.585	5.5	1승	0.298	5.17	0.565	327	304	53	21	33
4	LG	53	29	24	0	0.547	7.5	1승	0.283	4.53	0.467	290	264	47	35	30
5	KIA	50	27	23	0	0.540	8.0	2패	0.273	4.20	0.682	245	226	50	17	33
6	삼성	54	29	25	0	0.537	8.0	1패	0.265	4.32	0.567	279	258	48	49	38
7	KT	53	25	28	0	0.472	11.5	1승	0.297	5.47	0.519	309	304	64	38	35
8	롯데	51	24	27	0	0.471	11.5	1패	0.271	4.71	0.625	243	255	38	37	26
9	SK	53	16	37	0	0.302	20.5	1승	0.241	4.79	0.370	198	279	45	25	39
10	한화	53	13	40	0	0.245	23.5	1패	0.244	5.69	0.250	185	326	29	27	45

•Before & After 7-Game

팀	28일	30화	1수	2목	3금	4토	5일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4화
두산	●NC	●키	○키	●키	○한	○한	○한	*LG	*LG	*LG	롯	롯	롯	*S
키움	○K	○두	●두	○두	○KT	○KT	●KT	*삼	*삼	*삼	K	K	K	*NC
SK	●LG	●삼	●삼	●삼	○롯	○롯	○롯	*NC	*NC	*NC	한	한	한	두
LG	○S	○KT	●KT	●KT	●삼	●삼	○삼	두	두	두	*NC	*NC	*NC	롯
NC	○두	○롯	○롯	○롯	●K	○K	○K	S	S	S	LG	LG	LG	키
KT	○한	●LG	○LG	○LG	○키	●키	○키	K	K	K	*삼	*삼	*삼	*한
KIA	●키	☂	○한	○한	●NC	●NC	●NC	*KT	*KT	*KT	*키	*키	*키	삼
삼성	○롯	○S	○S	○S	○LG	○LG	●LG	키	키	키	kt	kt	kt	*K
한화	●KT	☂	●K	●K	○두	○두	○두	*롯	*롯	*롯	*S	*S	*S	kt
롯데	○삼	●NC	●NC	●NC	○S	○S	○S	한	한	한	*두	*두	*두	*LG

○=승 ●=패 □=무 *=홈경기

•타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홈런	득점	타점	도루	4사	삼진	실책	득점권	OPS
1	김선빈	KIA	0.378	38	135	51	0	20	18	1	21	17	1	0.484	0.926
2	로하스	KT	0.374	53	214	80	19	47	48	0	20	50	2	0.346	1.146
3	페르난데스	두산	0.370	53	216	80	8	45	37	0	27	15	0	0.321	0.984
4	강진성	NC	0.365	47	159	58	9	28	38	4	13	20	2	0.419	1.026
5	이정후	키움	0.364	54	209	76	8	37	39	3	25	16	1	0.373	1.032
6	손아섭	롯데	0.357	51	196	70	3	39	35	2	27	21	1	0.375	0.910
7	배정대	KT	0.337	53	205	69	6	31	27	7	21	48	1	0.306	0.927
8	조용호	KT	0.333	50	147	49	0	32	15	5	23	23	0	0.415	0.802
9	김현수	LG	0.329	53	219	72	8	38	41	0	15	20	0	0.429	0.897
10	강백호	KT	0.326	38	144	47	11	33	32	2	20	28	1	0.217	1.036
11	김상수	삼성	0.326	52	181	59	0	34	14	7	34	31	5	0.333	0.838
12	라모스	LG	0.324	48	173	56	14	24	34	0	24	47	2	0.308	1.013
13	김재호	두산	0.322	42	143	46	1	23	17	3	19	17	4	0.323	0.791
14	박민우	NC	0.313	47	176	55	3	31	21	5	16	12	1	0.417	0.822
15	최형우	KIA	0.312	49	170	53	9	33	35	0	31	27	0	0.316	0.938

※ 득점권 타율 :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시 타율 OPS : 출루율 + 장타율

•평균자책점

순위	선수	팀	방어율	경기	이닝	실점	자책	승	패	세	안타	홈런	삼진	4사	피타율	WHIP
1	요키시	키움	1.30	11	69.1	17	10	7	2	0	50	2	49	12	0.198	0.87
2	구창모	NC	1.50	10	66.0	13	11	7	0	0	38	3	76	12	0.166	0.76
3	루친스키	NC	2.30	11	70.1	19	18	7	1	0	58	6	65	23	0.222	1.11
4	브룩스	KIA	2.36	11	68.2	19	18	3	3	0	60	2	62	16	0.238	1.08
5	스트레일리	롯데	2.53	11	67.2	23	19	1	2	0	54	4	71	19	0.220	1.06
6	원태인	삼성	2.97	11	60.2	21	20	5	2	0	60	6	36	23	0.255	1.34
7	문승원	SK	3.26	10	58.0	25	21	2	4	0	53	4	56	18	0.241	1.17
8	알칸타라	두산	3.45	11	70.1	28	27	7	1	0	71	7	61	17	0.260	1.18
9	라이트	NC	3.63	11	62.0	25	25	6	2	0	57	6	49	31	0.248	1.35
10	배제성	KT	3.66	10	59.0	25	24	4	2	0	59	6	34	27	0.259	1.44
11	가뇽	KIA	3.77	10	57.1	28	24	5	3	0	53	1	57	21	0.245	1.22
12	서준원	롯데	3.95	10	54.2	25	24	4	1	0	57	9	27	19	0.274	1.32

※ 피타율 : 안타 ÷ 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 (안타+볼넷) ÷ 이닝

해외축구 〈7일〉

•프리미어리그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1	리버풀	33	89	29	2	2
2	맨체스터시티	33	66	21	9	3
3	레스터시티	33	58	17	9	7
4	첼시	33	57	17	10	6
5	맨체스터Utd.	33	55	15	8	10
6	울버햄튼	33	52	13	7	13
7	아스널	33	49	12	8	13
8	토트넘	33	48	13	11	9
9	셰필드Utd.	33	48	12	9	12
10	번리	33	46	13	13	7
11	에버턴	33	44	12	13	8
12	뉴캐슬	33	43	11	12	10
13	사우스햄튼	33	43	13	16	4
14	크리스탈팰리스	33	42	11	13	9
15	브라이튼	33	36	8	13	12
16	웨스트햄	33	31	8	18	7
17	왓포드	33	28	6	17	10
18	애스턴빌라	33	27	7	20	6
19	본머스	33	27	7	20	6
20	노리치시티	33	21	5	22	6

득점

	선수	팀	득점
①	바디	레스터시티	21
②	아우바메양	아스널	19
③	잉스	사우스햄튼	18
④	살라	리버풀	17
⑤	마네	리버풀	16
⑤	아게로	맨체스터시티	16
⑦	레쉬포드	맨체스터Utd.	15
⑦	마샬	맨체스터Utd.	15
⑦	히메네스	울버햄튼	15
⑩	스털링	맨체스터시티	13
⑩	아브라함	첼시	13
⑩	칼버트-르윈	에버턴	13
⑩	케인	토트넘	13
⑭	데 브루인	맨체스터시티	11
⑭	우드	번리	11
⑭	푸키	노리치시티	11
⑭	히샬리송	에버턴	11
⑱	제수스	맨체스터시티	10
⑲	마레즈	맨체스터시티	9
⑲	모페	브라이튼	9

•경기결과

토트넘 1 - 0 에버턴

아마추어 경기결과 〈7일〉

배구 ●2020 전국 대학 배구 고성대회(고성국민체육센터)
•남자부 A그룹 B조=홍익대 3-0 경남과대
•여자부 예선전=목포과대 3-0 우석대, 단국대 3-0 호남대

경기 예고

프로야구 〈8일〉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	〈잠실〉	두산	NC	〈인천〉	SK
오후6시30분, SPOTV			오후6시30분, KBSN스포츠		
KT	〈광주〉	KIA	삼성	〈고척〉	키움
오후6시30분, SPOTV2			오후6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대구방송-R		
롯데	〈대전〉	한화			
오후6시30분, SBS스포츠, KNN-R, 대전MBC-R					

아마추어 경기예고 〈8일〉

야구 ●2020 KUSF 대학야구 U-리그(각 승인경기장, 오전9시)
배구 ●2020 전국 대학 배구 고성대회(고성국민체육센터) 전6시)

오늘의 토토 〈8일〉

•야구토토 스페셜 53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07.08 (수) 18:30	두산	vs	LG	서울잠실야구장
2	07.08 (수) 18:30	SK	vs	NC	인천SK행복드림구장
3	07.08 (수) 18:30	키움	vs	삼성	고척스카이돔